

태국의 국내정치구도의 평가와 향후 전망: 동아시아 협력의 전망을 중심으로

이병도* (제주평화연구원 객원연구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동 2572 (697-120)
전화: 064)735-6500 팩스: 064)735-6512
E-mail: policyforum@jpi.or.kr http://www.jpi.or.kr

『JPI 정책포럼』에 게재된 의견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
제주평화연구원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ISSN: 2005-9760

탁씨는 1994년 정계에 입문한 후 1998년 타이락타이당을 창당하고 2001년 총선에서 다수의석을 차지한 후 성공적인 정치경력을 살려 2005년 총선에서 승리하여 재집권에 성공함

저소득층에게 복리를 증진시키는 이른바 '탁션노믹스'(Thaksinomics)를 통해 대중의 인기를 얻은 반면 왕실의 권위를 부정하는 발언과 정책으로 왕실과 군부로 구성된 지배층의 반대를 부름

군부는 쿠데타를 통해 탁션을 권좌에서 축출했지만 1년 3개월의 임시정부 후에 실시된 2007년 12월 총선에서 탁션의 세력으로 구성된 국민의 힘당이 과반에 7석이 모자라는 233석을 차지하여 집권당이 됨

노란 옷의 국민민주주의연대(People's Alliance for Democracy, PAD) 시위대는 대표적인 반(反)탁션파로 남부와 방콕의 부유층, 군부, 사법부, 재계의 엘리트 등이고 탁션을 지지하여 PAD 시위대와 곳곳에서 충돌하기도 했던 붉은 옷의 독재저항민주주의연합전선(National United Front of Democracy Against Dictatorship, UDD)은 북부와 방콕의 농민과 도시 빈민에 기반을 두고 있음

여당은 동북부와 북부, 야당은 남부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태국 정치의 지역화 현상은 이미 1980년대 초부터 시작되어 왔으며, 특히 지난 2007년 12월 총선에서는 중선거구제 하에서 여당이 남부에서 단 한 석도 얻지 못하는 지역화 심화가 나타남

경제사회개발계획으로 인한 혜택과 이익의 대부분이 도시 중산층에게 돌아간 반면, 대부분 농촌에 거주하는 태국의 하층민들은 철저히 경제발전의 혜택으로부터 소외당했을 뿐만 아니라 태국정부는 수자원, 임산자원, 광물, 인력 등 농촌의 자원을 이용하여 도시민의 소득 향상에 지원함으로써 농촌인들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켰음

군부가 국왕을 호위한다는 점에서 태국의 정치가 선군정치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권력 구도에 김정일이 관심을 보였으며 클린턴 행정부시절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이 평양을 방문했을 때, 태국정치구도에 흥미를 보였다는 점에서 태국의 국왕과 군부의 권력구도에 대한 이해는 북한 시스템을 이해하는데 흥미로운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음

태국의 정정불안은 아직도 진행중이며, 탁션 세력과 반탁션 세력이 양극으로 뚜렷하게 나뉘어져 서로 대립하는 정치적 갈등은 어떤 세력이 주도권을 잡더라도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는 조짐으로 판단됨

시위가 격화돼 유혈사태가 계속되면 국가화해와 질서유지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군이 개입할 명분을 주게 되고, 군부쿠데타가 발생하면 이후에 어떤 인물로 어떤 정부가 구성될지 예측이 어려움

*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목 차

- 1. 탁싰의 정치적 성과와 몰락: 2006년 9월 쿠데타
- 2. 태국의 최근 정치사태
- 3. 태국 국내정정 불안의 구조적 요인
- 4. 태국 국왕의 정치적 역할
- 5. 전 망

1. 탁싰의 정치적 성과와 몰락: 2006년 9월 쿠데타

- O 태국정치에서 지도자의 리더십 부재는 태국정치에 있어 아킬레스건이었으나 탁싰이 집권한 후 태국 정치는 변화하기 시작했음
 - 탁싰은 경찰 부총경 출신으로 1987년 ‘친나왓 컴퓨터&커뮤니케이션 그룹’을 설립하여 이동통신과 케이블TV 시장을 차례로 석권하면서 급성장하여 태국 최대의 정보통신 재벌로 억만장자가 된 최고경영자 출신으로 1994년 정계에 입문한 후 1998년 타이락타이당을 창당하고 2001년 총선에서 태국 선거사상 유례를 찾아 볼 수 없었던 의회 과반수에 근접하는 의석을 차지하면서 일약 최고의 정치인에 등극하였음
 - 4년간의 재임기간의 성과를 활용하여 2005년 2월 총선에서도 타이락타이당은 압도적인 의석을 차지함으로써 탁싰은 태국 역사상 최초로 선거를 통해 재집권하는 총리가 되었음
 - 대외적으로 2003년 10월 방콕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성공리에 개최함으로써 태국을 동남아의 맹주(盟主)로 부각시키며 자신의 리더십을 과시하고 국내 문제에 있어서도 마약과 매춘 문제에 강력하게 대처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국가 이미지를 쇄신하였음
- O 포퓰리즘(popualism)에 가까운 대중영합주의와 기업경영철학을 정치에 접목시켜 국가를 이끄는 리더십을 보였는데 태국이 외환위기를 탈출하기 위해 실시한 4M 정책과 저소득층에게 복리를 증진시키는 이른바 ‘탁싰노믹스’(Thaksinomics)가 그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음
 - 4M은 국가 경영에 꼭 필요한 인력(man), 물자(material), 자금(money), 관리(management)를 의미하는데, 탁싰 총리는 평상시 인적 자원을 중시하지만 위기상황에서 국가의 관

탁싰은 태국 역사상 최초로 선거를 통해 재집권하는 총리가 되었음

리를 우선시하여 관리경험이 풍부한 인사들을 중용하여 조직을 재정립함으로써 외환위기에 빠졌던 태국경제를 효과적으로 관리함

- 탁싰의 경제정책으로 태국은 IMF 체제를 예정보다 2년 앞당겨 2003년 졸업했으며, 2003년-2005년간 경제성장률도 6.5%를 상회하고 2001년 4.9조바트였던 국내총생산(GDP)이 2006년 7.1조 바트로 크게 증가했으며, 2003-2004년 동안 농촌 수입이 연 20% 가량씩 증가함에 따라 절대빈곤층이 크게 줄고 국민생활 수준도 한 단계 상승함
- 대중영합주의라는 야당의 비판을 받으면서도 탁싰은 20억 달러에 달하는 마을기금을 조성하여 농업과 가내수공업 등의 일차 산업을 육성하고, 농가에 필요한 자금을 저금리로 대출해 주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 빈곤퇴치 운동 외에도 저소득 국민들에게 무상 의료서비스, 무상교육, 3년간 농가부채 동결, 500억 달러의 사회기반 시설 확충사업 등으로 경기상승을 이끌어 저소득층에게 구세주와 같은 인물로 자리매김하였음

○ 왕실의 권위를 부정하는 탁싰의 발언과 정책은 지배층의 결집을 불렀고 동시에 왕실과 군부의 거부감을 사게 되어 탁싰의 리더십은 대중영합주의 정책과 급진적 정치개혁의 추진을 수행하는 독단적인 권위주의로 비판을 받아 중산층과 언론, 의회 등 보수 세력들의 반감을 사게 됨

- 일반적으로 태국 지도자는 태국 정치에 다섯 개의 기둥인 국왕, 국민, 미디어, 의회, 군부의 지지를 얻어야 안정된 정치를 할 수 있다고 평가하는데 탁싰은 도시의 노동자와 저소득층을 제외하고 어느 분야에서도 신뢰받지 못했음
- 탁싰은 실제로 대부분의 언론을 자신의 손아귀에 넣기 위해 언론을 탄압하고, 2004년 초부터 빈번하게 발생한 남부 무슬림 지역의 유혈사태도 초강경으로 대응하여 국민의 불안감을 조성했고, 역대 어느 정권도 손대지 못한 마약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해결 과정에서 관련자 2

*왕실의 권위를 부정하는
탁싰의 발언과 정책은
지배층의 결집을 불렀고...*

*대중영합주의 정책과
급진적 정치개혁의 추진을
수행하는 독단적인
권위주의로 비판을 받음*

서민에 대한 정책은
제도권의 정당이 선거에
정강정책으로 내세울 수
없고 왕과 왕실만이
언급할 수 있는
독점공공재의 성격을
가졌음

- 천여 명을 처형하여 인권문제가 대두되기도 했음
- 2006년 쿠데타의 직접적인 명분이 된 것은 탁싨의 부정부패라고 할 수 있음. 2001년 8월 태국의 반부패위원회로부터 재산공개 누락 혐의로 헌법재판소에 고소를 당해 순수 성과 권위에 손상을 받았고, 2005년에 들어서 보건장관의 수뢰 혐의로 인한 구속, 부인의 소득세 탈루 의혹, 신공항 검색대 폭발물탐지장치 도입 수뢰 의혹 등 측근들의 부정부패사건들이 탁싨을 위기로 몰아갔으며, 특히 2006년 1월 주식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은 탁싨 몰락의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음
- 탁싨의 부정부패에 대한 이미지는 기업을 다루듯이 국가를 다룬다고 비판하며 탁싨 총리가 기업인이 아닌 국가 정치 지도자로서 면모를 갖추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국정과 개인사업의 경계가 분명치 않은 점에 대해 중산층에서 불만을 토로하기 시작함

- 태국 정치에서 흥미로운 점은 서민에 대한 정책은 제도권의 정당이 선거에 정강정책으로 내세울 수 없고 왕과 왕실만이 언급할 수 있는 독점공공재의 성격을 가졌음
 - 왕과 왕실만이 서민관련 정책을 통해 서민의 지지와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치적 전통을 형성해온 결과이며 제도권 정당이 서민에 대한 정책을 발표하는 것은 왕과 왕실의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되었음
- 탁싨의 몰락은 그의 권위적이고 민주주의적인 요소들이 국가가 처한 경제적 위기를 현명하게 헤쳐 나가는데 일조했다면, 그러한 위기로부터 어느 정도 해방되자 국민들은 다시 탁싨의 리더십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하였고 정치권력이 정도를 벗어나 경제권력에 예속되었을 때 발생하는 부패와 정치왜곡을 드러내자 2006년 9월 군부는 쿠데타를 일으켜 탁싨를 권좌에서 축출함

2. 태국의 최근 정치사태

- 군부는 쿠데타를 통해 탁싌을 권좌에서 축출했지만 탁싌 세력이 총선에서 승리하자 반탁싌세력과 대결구도가 전개되면서 정치불안이 지속됨
- 쿠데타 후 1년 3개월의 임시정부 후에 실시된 2007년 12월 총선에서 탁싌의 세력으로 구성된 국민의 힘당이 과반에 7석이 모자라는 233석을 차지하여 1당이 됨으로써 탁싌 세력의 부활을 알리고 도시노동자와 농민층에 탁싌의 지지기반이 상당함을 과시함
 - 국민의 힘당은 5개 중소정당을 포함하여 연합정부를 구성하였고 탁싌을 지지하던 싸막이 총리가 되었으나 정치적 불안은 지속됨
 - 태국 의회가 싸막 총리 및 7명의 각료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을 부결시켰고, 이 같은 상황에서 반탁싌시위대는 싸막이 탁싌의 꼭두각시라며 싸막의 퇴진을 요구함
 - 세금포탈죄로 징역 2년 형을 선고 받은 탁싌이 8월 영국으로 망명하자 반탁싌 시위가 격화되어 정부청사 점거, 국제공항 활주로 점거, 경찰서와 방송국에 대한 공격 등이 계속됨
 - 퇴진을 거부하던 싸막은 총리직을 맡은 이후에도 개인회사의 요리관련 프로그램을 돈을 받고 진행한 것에 대해 태국헌법 276조에 따라 헌법재판소로부터 유죄판결을 받고 총리직을 박탈당함
 - 10월 탁싌의 매제인 솜차이가 수상에 취임하는 등 탁싌세력이 정치전면에 포진함으로써 정치적 불안은 지속되었음
- 엘리트와 중산층이 지지기반인 민주주의국민연합(People's Alliance for Democracy, PAD)은 2006년 탁싌의 권력남용과 비리를 비판하며 대규모 거리 시위를 이끌었고 탁싌을 권좌에서 축출시킨 주역으로 정권교체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

*엘리트와 중산층이
지지기반인 PAD는
2006년 탁싌의
권력남용과 비리를
비판하며 대규모 거리
시위를 이끌었고 탁싌을
권좌에서 축출시킨 주역임*

2006년 쿠데타는
1932년 입헌혁명 이후
19번째 쿠데타로 평균
4년에 한 번 꼴로 군부
쿠데타가 발생함

했고, 최근의 폭력사태는 이러한 인위적인 정권 교체에 반발한 탁싨 지지 세력의 시위에서 비롯된 결과임

- 2008년 5월부터 꾸준히 지속되어 온 PAD 주도의 반탁싨 시위는 11월 말 정부종합청사, 공항 점거 등으로 이어지면서 12월 15일 결국 야당인 민주당 당수인 아피삿이 총리에 오르면서 일단락되는 듯 했으나 2008년 12월 총선에서 165석(전체 의석 480석)을 차지하는 데 그쳤던 야당 민주당이 기존에 315석의 친(親)탁싨계 연정에 가담했던 4개 군소 정당을 끌어들이면서 인위적으로 정권 교체에 성공하였음
- 탁싨이 집권하던 2005년부터 이미 태국사회는 붉은 옷을 입은 친(親)탁싨파와 노란 옷을 입은 반(反)탁싨파로 분열되어 심각한 정치적 갈등이 지속되어 왔음
- 노란 옷의 PAD 시위대는 대표적인 반(反)탁싨파로 남부와 방콕의 부유층, 군부, 사법부, 재계의 엘리트 등이고 탁싨을 지지하여 PAD 시위대와 곳곳에서 충돌하기도 했던 붉은 옷의 독재저항민주주의연합전선(National United Front of Democracy Against Dictatorship, UDD)은 북부와 방콕의 농민과 도시 빈민에 기반을 두고 있음

○ 4년여 동안 지속된 정치적 갈등의 배경에는 전통적으로 권력을 행사해왔던 국왕의 파트너인 왕실과 군부와 탁싨을 지지하는 신흥 시민권력으로 구성된 지지세력으로 대별되는 양계층간의 대결구도로 파악할수 있음

- 태국의 정치구도는 친탁싨 대 반탁싨의 또는 친왕당 대 반왕당의 대결구도로 나눌 수 있지만 두 가지의 다른 구도가 친탁싨 그룹이 반왕당그룹과 그리고 반탁싨그룹이 친왕당 그룹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계층간 갈등구도라 할 수 있음

3. 태국 국내정정 불안의 구조적 요인

- 빈번한 쿠데타가 가장 직접적인 정치불안의 원인
 - 2006년 쿠데타는 1932년 입헌혁명 이후 19번째 쿠데타로 평균 4년에 한번 꼴로 군부 쿠데타가 발생한 것으로 태국은 쿠데타의 실험실이라는 오명을 얻고 있음
 - 1932년 입헌군주제로 바뀌는 과정을 주도한 세력이 바로 군부였으나, 군부세력은 그 이후 태국 정치를 좌지우지한 60년의 전통을 갖고 있음

- 군부에 대적할 수 있는 민간조직이 취약했고, 특히 민간조직 중 가장 강력하고 조직화되어 있는 관료체제마저 군부에 지배당해 왔음
 - 1992년 민간정부가 이어지면서 군의 정치개입을 차단하는 법적 장치들이 강화되었으나 군은 여전히 태국정치에서 중요한 세력으로 태국의 2개 TV방송국을 육군이 소유하거나 통제하고 있으며, 전기나 철도공사, 항공사도 군이 소유하고 있어 국영기업에 대한 영향력도 막강함. 태국의 육군사령관이 수도권 일대의 육군, 해군, 공군, 경찰 등 모든 부대를 지휘할 권한을 가진 지휘 체계도 쿠데타를 쉽게 모의할 수 있는 요인이 됨

- 정당정치의 발전에 정치문화적, 제도적, 행태적 제약이 존재함
 - 태국 헌정사 74년 동안 정당 활동이 허용된 시기는 불과 39년밖에 되지 않아 정당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었으며 태국 정치문화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인 권위주의적 정치문화는 인물을 중심으로 한 가치획득에 집착하게 하고, 참여형 정치문화를 갖게 하는데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여 안정된 정당정치의 발전을 저해하고, 정당체계의 자연적인 형성보다는 인위적인 형성을 허용하는 중요한 원인이 되었음

태국정당은 이념과 정책을 중심으로 형성되고 발전된 대중정당이 아니라 연분과 이해관계에 따른 후원수혜관계를 기반으로 한 리더십 중심의 파벌집단을 형성함

2007년 12월

총선에서는 중선거구제
하에서 여당이 남부에서
단 한 석도 얻지 못하는
지역화 심화가 나타남

- 제도·구조적인 측면으로 태국의 정당체계는 정치체제나 선거제도와 상관없이 대부분의 기간 동안 다당제를 유지해 오면서 정당 내 파벌형성이나 정당 간 이합집산의 악순환을 반복해왔고 선거자금의 수요가 커지면서 타락선거, 금권선거 등의 부정선거 시비가 끊이질 않아 정당체계를 인위적으로 형성하는데 일조하였음
 - 행태적인 측면에서, 태국정당은 이념과 정책을 중심으로 형성되고 발전된 대중정당이 아니라 연분과 이해관계에 따른 후원-수혜관계를 기반으로 한 리더십 중심의 파벌집단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정당의 조직구조 측면에서 볼 때 대부분의 정당이 파벌화 현상을 공통적으로 보여주며, 정책면에서 정당간의 차별성이 거의 나타나지 않고, 선거 때마다 많은 정당이 난립하는 가운데 과반수 정당 없이 연립정부를 구성함으로써 정치적 불안이 상존해 왔음
- 여당은 동북부와 북부, 야당은 남부에 기반을 둔 정치의 지역화 현상으로 국론이 분열됨
- 지역화 현상은 이미 1980년대 초부터 시작되어 왔으며, 특히 지난 2007년 12월 총선에서는 중선거구제 하에서 여당이 남부에서 단 한 석도 얻지 못하는 지역화 심화가 나타났고 이러한 지역화 현상은 탁싨이 정치무대에 등장한 이후 탁싨 세력과 반탁싨 세력으로 양분됨으로써 더욱 고착화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음
 - 태국의 정치구도 중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은 ‘붉은 옷’을 입은 탁싨 지지세력은 분명한 정치세력으로 보이는 반면 ‘노란 옷’을 입은 PAD는 왕실이 배후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 때문에 이들이 조직하고 주도하는 시위를 경찰이나 군이 적극적으로 제재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이고 있음. PAD는 국민의 대표로 구성되는 의회의 의원 중 70%를 선출이 아니라 국왕이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점에서 정체성이 드러나고 있음

- O 태국의 정치적 갈등이 정치지도자들의 권력투쟁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경제적 상황에 대한 계층간 갈등의 양상이라는 점에서 전국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빈민을 대상으로 하는 탁신의 경제정책이 여전히 대중의 호응을 얻고 있으며 이는 현재의 정치적 갈등이 외면적으로는 정체세력 간의 갈등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불균형과 관련된 경제·사회구조적 갈등으로 파악됨
 - 태국은 1961년부터 경제사회개발계획을 추진해 왔으나 지난 50여 년 간 부유층과 빈곤층의 계층 간 격차는 지속적으로 증가되어 왔음. 빈곤지수를 볼 때 소득이나 다른 생산요소의 측면에서 빈곤층의 수가 감소하였으나 계층간 격차는 감소하지 않음. 2007년 기준으로 빈곤층(최저 10%)과 부유층(최고 10%)의 소득격차가 2004년 22.5배에서 약 30배로 증가했고 토지소유에 있어서 상위 50위와 하위 50위의 격차는 291,607배에 달함
 - 지난 50년간 경제사회개발계획으로 인한 혜택의 대부분이 도시중산층에게 돌아간 반면, 농촌에 거주하는 태국의 하층민들은 철저히 경제발전의 혜택으로부터 소외되었고 태국정부는 값싼 농촌의 자원을 이용하여 도시민의 소득 향상을 지원함으로써 농민의 부담을 가중시켰음
 - 정부로부터 소외, 부패 관료들의 억압, 그리고 필요한 자원 접근성의 제한 등은 농민들로 하여금 정부정책에 등을 돌리도록 만들었지만 탁신은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을 통해 빈곤퇴치에 일조를 함으로써 농민과 도시빈민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았음

4. 태국 국왕의 정치적 역할

- O 1946년 즉위한 뒤 63년간 태국을 통치해 온 푸미폰 국왕은 태국 국민들로부터 ‘살아 있는 부처’로 추앙받고 있고 입헌군주제인 태국에서 현 국왕은 상징적인 인물이면서 과거

태국은 1961년부터
경제사회개발계획을
추진해 왔으나 지난 50여
년 간 부유층과 빈곤층의
계층 간 격차는
지속적으로 증가함

태국 국왕의 왕권은 태국 사회에서 부처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정의로운 왕’과 신의 존재로 비쳐지는 ‘카리스마적 존재’의 두 가지 기능을 담당하고 있음

군부 쿠데타 등 정정 불안 때마다 높은 도덕적 권위로 정국을 안정시켰음

- 푸미폰 국왕의 재임기간 중 총 19차례의 쿠데타가 발생하였고 국왕은 쿠데타의 정당성을 나름대로 심판해 왔음
- 1973년 민주화 시위 때 군사정부 사퇴를 이끌어 냈고, 1992년 쿠데타에서는 추인을 거부하여 민주세력의 손을 들어주었으며, 2006년 쿠데타도 묵시적으로 동의함으로써 탁싨의 축출을 이끌어 냈음

○ 태국 국왕의 왕권은 태국 사회에서 부처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정의로운 왕’과 신의 존재로 비쳐지는 ‘카리스마적 존재’의 두 가지 기능을 담당하고 있음

- 1932년 절대왕정이 붕괴된 후 법적으로 국왕은 정치적 권한은 없으나 현실정치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
- 1932년 입헌군주제 채택 이후 태국 국왕은 국가 통합의 구심점으로 존재하는 명목상 군주로서 통치는 할 수 없게 되어 있지만 헌법 제7조의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국왕이 결단을 내릴 수 있다”는 애매한 조항에 근거해 국왕의 정치 개입 근거로 활용될 소지가 있음. 국왕은 군림하되 통치하지 않기 때문에 정치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지만 국가가 위기해 처했다고 판단될 때는 직접 개입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국왕이 현실정치에 개입할 여지가 있음

○ 태국의 정치에서 왕권을 수호하는 세력으로는 기득권을 향유해온 군부의 지도세력과 세습재벌로 구성되어있음

- 태국에서 국왕은 원래부터 정치적 영향력이 있었던 것은 아니며 1932년 절대왕정체제를 무너뜨린 군부(軍部)는 자신의 정통성을 세우려고 국왕과 공존공생의 길을 걸어 왔음. 1957년 짜릿 군사정권은 국가통합과 국민동원을 위해 불교와 국왕을 태국 사회의 구심점으로 삼았고, 국왕은 경제사회적으로 빈곤한 자나 혜택을 받지 못한 자들을 위해 헌신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자비로운 부처의 모습으로 비추

는데 노력해 왔음

- 군부가 국왕을 호위한다는 점에서 태국의 정치가 선군정치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권력구도에 김정일이 관심을 보였으며 클린턴 행정부시절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이 평양을 방문했을 때, 태국정치구도에 흥미를 보였다라는 점에서 태국의 국왕과 군부의 권력구도에 대한 이해는 북한 시스템을 이해하는데 흥미로운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음

○ 태국에서 국왕의 존재는 국민 여론의 극단적인 분열이나 국가위기 상황에 있어서 국가통합을 이룩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지만 국왕의 권위주의적인 요소들은 태국의 민주주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역기능으로 작용하고 있음

- 국왕에 대한 현금으로 마련된 Royal Fund를 이용하여 일반인들에 대한 영농지원사업이나 사방사업과 같은 Royal Project를 운영하고 있는데 기금의 규모와 운영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음. 한편 태국에서 국왕과 왕실에 대한 비판은 실정법으로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법을 규정하고 있음

5. 전 망

○ 2008년 11월부터 계속되어 온 정치적 혼란과 폭력 사태는 태국사회에 적지 않은 상처를 남겼고 특히 4월 시위는 탁실파의 불만이 전혀 해소되지 않은 채 표면적으로 강제 봉합됐기 때문에 태국의 정정불안은 아직도 진행중이며, 탁실파 세력과 반탁실파 세력이 양극으로 뚜렷하게 나뉘어져 서로 대립하는 정치적 갈등은 어떤 세력이 주도권을 잡더라도 지속될 것이라는 조짐으로 판단됨

- 향후의 태국의 정국을 전망해 보면, 먼저 아피싯 총리가

태국의 정정불안은 아직도 진행중이며, 탁실파 세력과 반탁실파 세력이 양극으로 뚜렷하게 나뉘어져 서로 대립하는 정치적 갈등은 어떤 세력이 주도권을 잡더라도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는 조짐으로 판단됨

시위가 격화돼 유혈사태가 계속되면 국가화해와 질서유지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군이 개입할 명분을 주게 되고, 군부쿠데타가 발생하면 이후에 어떤 인물로 어떤 정부가 구성될지 예측이 어려움

의회를 해산하고 조기총선을 실시하여 유권자들로부터 정치적 검증을 받을 경우 반정부시위를 잠재울 수 있고 태국 정정에 대한 불안감은 줄어들 것으로 보이지만, 탁싨 지지 세력은 인구 밀집 지역인 북동부와 북부지방에서 강력한 지지기반을 가지고 있어 총선을 실시할 경우 친탁싨 세력이 승리하여 집권할 것으로 예상됨

- 친탁싨 세력이 재집권할 경우 PAD 주도의 반정부 시위가 다시 재개될 가능성이 높고 PAD의 최종 목표는 탁싨 축출에 이어 잔존세력의 와해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정국불안의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음

○ 시위가 격화돼 유혈사태가 계속되면 국가화해와 질서유지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군이 개입할 명분을 주게 되고, 군부쿠데타가 발생하면 이후에 어떤 인물로 어떤 정부가 구성될지 예측이 어려움. 지난 시위 해산 이후 친탁싨 세력은 향후의 목표를 거리 시위가 아닌 ‘지하시위’를 목표로 하고 있어 반대측에 대한 테러가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정국 혼란이 가중되어 해결책이 없는 상황에서 국왕의 개입이 예상되지만, 어떤 형태로든 국왕이 개입하면 현 정부에 득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최근 몇년 간 지속되어 온 태국의 정국 불안의 본질적인 원인 중 하나가 노쇠한 국왕과 입헌군주제를 둘러싼 의견 대립이라고 보는 시각이 있으므로 과거처럼 '군부 대(對) 민주화 세력'의 구도가 아니라, 탁싨 전(前) 총리 세력의 목표가 바로 왕실에 도전하는 것이며, 국왕의 사후 왕정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도라고 판단됨

○ 태국의 정치구도의 문제는 국왕의 사후 후계자 문제, 그리고 향후의 정국과도 연관성을 가지고 있음

- 와치라롱콘 왕세자는 사생활 문제와 좋지 않은 행실로 인

해 국민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고, 씨런턴 공주는 현 짝끄리 왕조에 여왕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승계가 부담스러우며, 미혼이어서 차기 후계가 문제가 되고 있음

- 왕세자의 지지자들이 경찰, 공군, 해군인 반면, 공주의 지지자들이 육군이라는 점도 국왕의 사후 권력쟁탈로 이어져 정국의 불안정을 일으키는 요인이 될 수 있음. 따라서 수용키 어려운 인물이 왕위를 계승할 경우 왕과 왕실의 권위가 급속히 무너지거나 혹은 왕실을 다시 상징적 위치로 격하시키거나, 그렇지 않으면 입헌군주제를 넘어 공화제로의 체제 변화를 시도할 수도 있음

○ 큰 변수가 없는 한 현재의 상태에서는 군부 및 왕실, 그리고 탁싌 간에 모종의 타협, 혹은 탁싌과 다른 정치세력의 변화만이 가장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현 정부는 국민다수가 정신적으로는 국왕을 지지하지만 현실 정치에선 서민보호와 경제발전을 내세운 탁싌의 정책에 대한 향수를 갖는 국민이 과반수를 넘는다는 것이 중요한 변수로 파악됨

○ 아세안 초기에는 태국의 위상이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으나 최근의 국내정치의 불안정으로 인해 아세안 내에서 태국의 위상은 정상회담을 개최할 수 없을 정도로 취약한 평가를 받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아세안이 미얀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아세안 자체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음

아세안 초기에는 태국의 위상이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으나 최근의 국내정치의 불안정으로 인해 아세안 내에서 태국의 위상은 정상회담을 개최할 수 없을 정도로 취약한 평가를 받음

최근 태국의 정치상황전개

일자	사건
2006년 1월 23일	탁싸 일가 '친(Shin) 코퍼레이션' 싱가포르 투자회사에 19억 달러에 매각, 세금 (소득세)미납으로 반 탁싸 시위 격화
2006년 2월 24일	탁싸 총리, 의회해산 뒤 4월 2일 총선 실시 발표
2006년 2월 27일	야3당, 탁싸이 개헌 중립내각구성안 거부하자 총선 불참선언
2006년 3월 14일	반 탁싸 시위대 10만명 정부청사 주변에 결집
2006년 4월 2일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총선 실시, 타이락타이당 승리
2006년 4월 4일	차기 정부에서 총리직 맡지 않겠다고 발표
2006년 5월 8일	헌법재판소 총선 무효선언 및 재선거 판결
2006년 5월 23일	탁싸 총리 공식업무 복귀, 10월 15일 재선거 실시 발표
2006년 9월 19일	군부쿠데타 발생
2007년 5월 30일	헌법재판소, 민주당 제외한 타이락타이당 등 4개 정당 해체 판결
2007년 8월 14일	대법원 탁싸 부부에게 체포영장 발부
2007년 8월 19일	신헌법 국민투표 통과
2007년 12월 23일	총선 실시, 탁싸계 신당 국민의 힘당 최다의석 확보
2008년 1월 19일	국민의 힘당 중심 연립정부 구성 발표(6개 정당)
2008년 1월 22일	탁싸 측근 용웁 티야파이랏 하원의장 선임
2008년 1월 28일	탁싸 측근 싸막 쏜터라웻 총리 선임
2008년 2월 28일	탁싸 귀국
2008년 5월 25일	시민사회단체 '국민민주주의연대(PAD)' 반정부 시위 시작
2008년 7월 31일	탁싸 부인 세금포탈죄로 징역 3년 형
2008년 8월 11일	탁싸 부부 영국으로 도피, 망명 신청, 대법원 탁싸에게 2년형 선고
2008년 8월 26일	PAD시위대 정부청사 난입
2008년 10월 1일	대법원, 싸막 총리에게 총리직 박탈 선고
2008년 10월 5일	솜차이(탁싸 매제) 총리직 이양

일자	사건
2008년 11월 26일	반 탁싨 세력 방콕 공항 점거
2008년 12월 2일	헌법재판소 연립정부 구성 3개 정당에 대해 해체 및 3당 간부 60명에 대해 5년간 정치활동 금지 판결
2008년 12월 15일	아피싨 민주당 당수가 총리직에 선출(4개 군소정당과 연립정부 구성)
2009년 4월 5일	탁싨 지지세력 정부청사 점거
2009년 4월 14일	탁싨 지지세력 시위대 해산

발표자: 이병도(제주평화연구원 객원연구위원 ·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토론자: 한태규(제주평화연구원장), 배공찬(외교안보연구원 교수)

정리 및 편집: 이성우(제주평화연구원 연구위원)

목 차

- 1. 탁싰의 정치적 성과와 몰락: 2006년 9월 쿠데타
- 2. 태국의 최근 정치사태
- 3. 태국 국내정치 불안의 구조적 요인
- 4. 태국 국왕의 정치적 역할
- 5. 전 망

1. 탁싰의 정치적 성과와 몰락: 2006년 9월 쿠데타

- O 태국정치에서 지도자의 리더십 부재는 태국정치에 있어 아킬레스건이었으나 탁싰이 집권한 후 태국 정치는 변화하기 시작했다
 - 탁싰은 경찰 부총경 출신으로 1987년 ‘친나왓 컴퓨터&커뮤니케이션 그룹’을 설립하여 이동통신과 케이블TV 시장을 차례로 석권하면서 급성장하여 태국 최대의 정보통신 재벌로 억만장자가 된 최고경영자 출신으로 1994년 정계에 입문한 후 1998년 타이락타이당을 창당하고 2001년 총선에서 태국 선거사상 유례를 찾아 볼 수 없었던 의회 과반수에 근접하는 의석을 차지하면서 일약 최고의 정치인에 등극하였음
 - 4년간의 재임기간의 성과를 활용하여 2005년 2월 총선에서도 타이락타이당은 압도적인 의석을 차지함으로써 탁싰은 태국 역사상 최초로 선거를 통해 재집권하는 총리가 되었음
 - 대외적으로 2003년 10월 방콕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성공리에 개최함으로써 태국을 동남아의 맹주(盟主)로 부각시키며 자신의 리더십을 과시하고 국내 문제에 있어서도 마약과 매춘 문제에 강력하게 대처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국가 이미지를 쇄신하였음
- O 포퓰리즘(popualism)에 가까운 대중영합주의와 기업경영철학을 정치에 접목시켜 국가를 이끄는 리더십을 보였는데 태국이 외환위기를 탈출하기 위해 실시한 4M 정책과 저소득층에게 복리를 증진시키는 이른바 ‘탁싰노믹스’(Thaksinomics)가 그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음
 - 4M은 국가 경영에 꼭 필요한 인력(man), 물자(material), 자금(money), 관리(management)를 의미하는데, 탁싰 총리는 평상시 인적 자원을 중시하지만 위기상황에서 국가의 관

탁싰은 태국 역사상 최초로 선거를 통해 재집권하는 총리가 되었음

일자	사건
2008년 11월 26일	반 탁싰 세력 방콕 공항 점거
2008년 12월 2일	헌법재판소 연립정부 구성 3개 정당에 대해 해체 및 3당 간부 60명에 대해 5년간 정치활동 금지 판결
2008년 12월 15일	아피싯 민주당 당수가 총리직에 선출(4개 군소정당과 연립정부 구성)
2009년 4월 5일	탁싰 지지세력 정부청사 점거
2009년 4월 14일	탁싰 지지세력 시위대 해산

발표자: 이병도(제주평화연구원 객원연구위원 ·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토론자: 한태규(제주평화연구원장), 배궁찬(외교안보연구원 교수)
 정리 및 편집: 이성우(제주평화연구원 연구위원)